

# 1. 고물가와 소비: 가계의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국 거시분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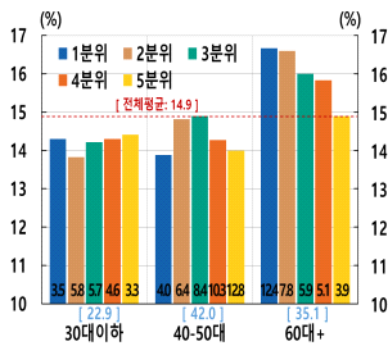
1. 21년 이후 최근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12.8%(연율 3.8%)로 2010년대 평균(연평균 1.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21-22년중에는 글로벌 공급충격과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압력이 중첩되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2. 물가상승은 ①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키는 경로와 ②자산·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경로의 영향은 가계의 소비 품목 구성(소비바스켓)과 재무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① 가계의 소비바스켓을 고려한 실효 물가상승률은 고령층(20-23년중 16%) 및 저소득층(15.5%)에서 여타 가계(청장년층 14.3%, 고소득층 1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소비바스켓에 그간 물가가 크게 상승한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목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데 주로 기인하였다. 다만 이들 취약층은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소비 위축이 완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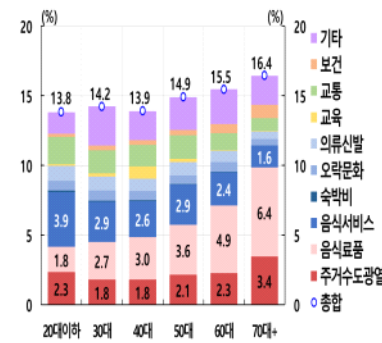
## 연령·소득별 이질적 실효물가      소비바스켓 차이→실효물가 차이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 상당폭 증가

<연령·소득분위별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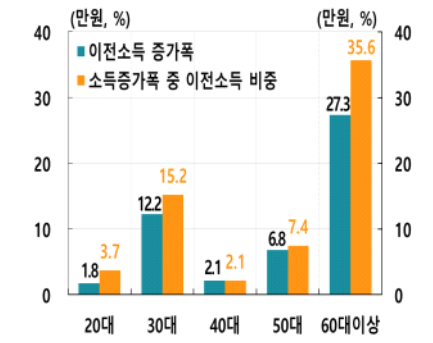
주: 1) 물가는 20-23누적, 연령·소득분위는 23년 기준  
2) [ ] 및 막대 내 숫자는 총 가구수 대비 해당 계층의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sup>1)</sup> 분해>



주: 1) 19.4/4 대비 23.4/4 상승률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공적이전소득 증감폭<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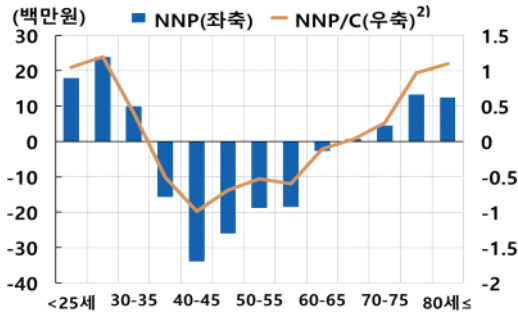
주: 1) 19.4/4 대비 23.4/4 증감폭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②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금융자산(및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 효과<sup>1)</sup>를 살펴보면, 고연령층(금융자산)과 전세로 거주하는 30대(전세보증금)에서 부정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을 보유한 가계는 물가상승에 따라 부채의 실질가치가 줄었다는 점에서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물가에 대응한 금리인상으로 이자비용이 늘어 그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1) 가계의 순금융자산으로 측정된 순명목포지션(Net Nominal Position, NNP)은 물가상승만큼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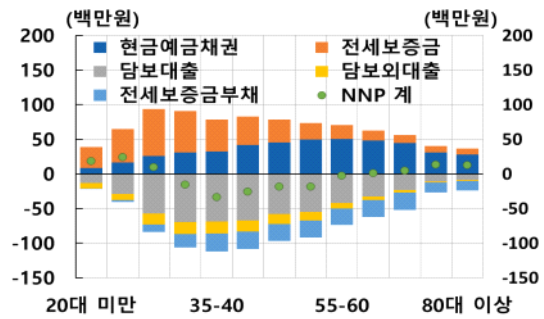
저연령층 및 고연령층은 물가상승시 자산상 손실 저연령층 전세보증금 자산이 NNP를 높이는 원인

<연령대별 순금융자산(NNP, 5세 단위)>



주: 1) 2019-23년 가계 평균, 가구주 연령 기준  
2) NNP/C는 가계 소비지출액(전년도)으로 표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조사국

<연령대별 NNP : 자산·부채 항목별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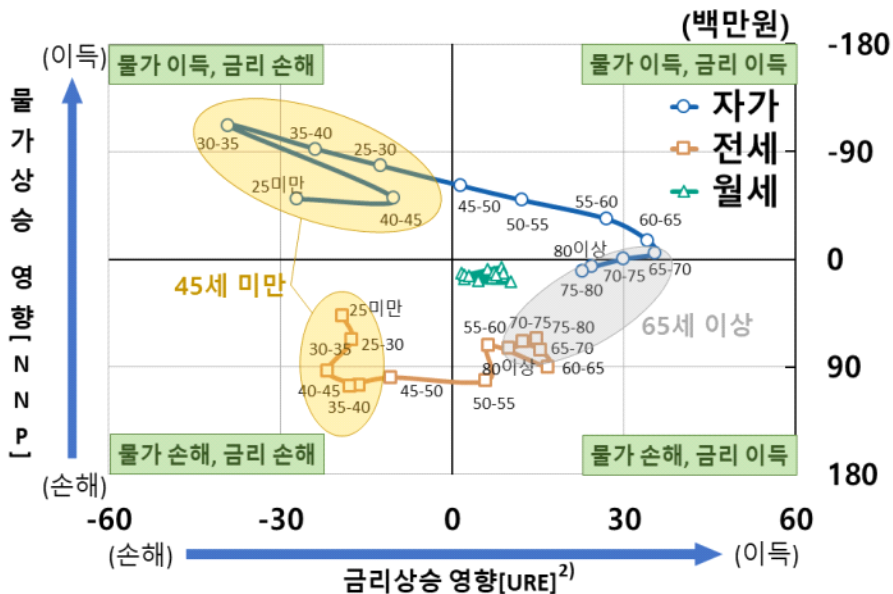


주: 1) 2019-23년 가계 평균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조사국

3. 같은 기간중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면, 저연령층이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가운데, 이들 중 전세거주 가구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45세 미만 전세거주자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자산 가치 하락의 영향을 받는 데다, 어느 정도 부채도 보유하고 있어 금리상승의 부정적 영향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반면 45세 미만 자가거주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수혜를 입는 대신 부채 보유수준이 높아 금리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크게 받는 계층이다.

저연령층에서 고금리 영향이 큰 가운데, 전세거주자는 고물가의 영향도 크게 받음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 영향 : 가계 연령 및 주거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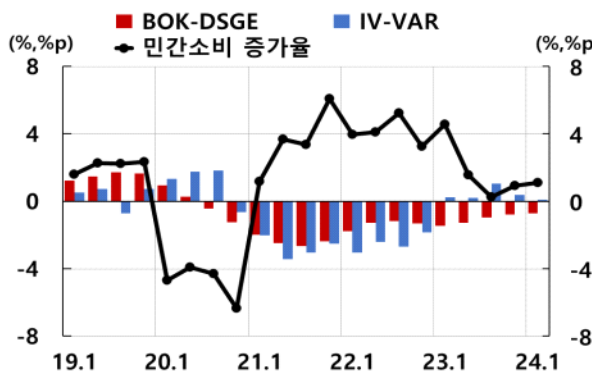


주: 1) 각 점은 가구주 연령을 5세 단위로 구분한 연령대별 평균 NNP와 금리익스포저(URE)에 해당(2019-23년 평균)하며, 파란점은 자가거주자, 주황점은 전세거주자에 해당  
2) URE는 가계가 보유한 금리갭신 만기 1년 이내의 순금융자산으로 측정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조사국

4. 모형을 통한 정량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이 21-22년중 실질구매력 축소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상당폭 둔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23년 이후 그 크기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형 추정 결과 21-22년중 물가 상승 충격으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율(20.4/4분기 대비 누적)이 4%p 내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팬데믹 이후 빠르게 진행되던 소비회복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었다(21-22년중 민간소비 누적증가율 9.4%). 이에 더해 가계별 금융자산·부채의 실질가치 변동에 따른 효과(피셔경로<sup>2)</sup>)도 21-22년중 소비를 추가로 위축시켰다(1%p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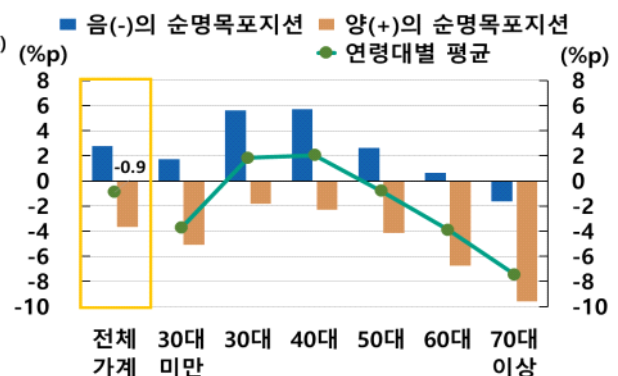
**물가상승으로 21년 이후 민간소비 상당폭 둔화 가계별 영향은 저연령 및 고연령층에서 높아**

<인플레이션 충격의 민간소비 영향<sup>1)</sup>(소득 경로)>



주: 1) 인플레이션 충격이 각 모형(BOK-DSGE 및 IV-VAR)의 파급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전년동기비%)에 미친 영향으로 피셔경로는 제외  
자료: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국

<인플레이션 충격의 민간소비 영향<sup>2)</sup>(피셔경로, 21-22년 누적)>



주: 1) 인플레이션 충격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년말 연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로 측정  
2) 가계 자산·부채 가치변동에 따른 피셔(Fisher) 재분배 경로만의 영향이며, 각 막대는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소비변화율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5.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됨에 따라 가계소비가 물가로 인해 위축되는 효과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도 있는 만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자산 측면에서 물가상승은 가계가 보유한 자산(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소비 어려움을 제약(확충)하기도 하며, 동 영향은 가계의 재무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채권자(creditor)로부터 채무자(debtor)로 실질 부(wealth)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피셔 효과(Fisher effect) 또는 부의 경로(wealth channel)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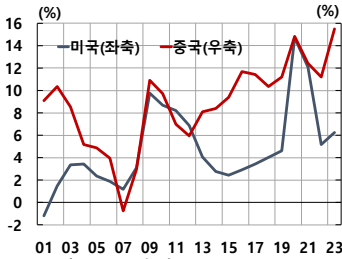
## 2.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조사국 국제종합팀·미국유럽경제팀·중국경제팀)

1. 최근 미국과 중국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특징①] 먼저 양국 모두 민간소비 지원 강화, 인프라투자 확대 등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특징②] 또한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분절화 및 첨단 제조업 우위 경쟁이 고조되면서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징③] 한편 최근 중국의 성장 이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대조를 보이며, 양국간 갈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재정지출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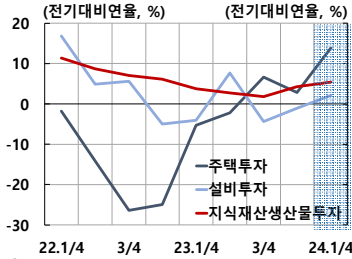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



주: 1) GDP대비  
자료: CBO, 중국 국가통계국 및 재정부

미국, 주택·설비·지재물 투자 증가

<미국 주요 부문별 투자>



자료: BEA

중국, 수출가격 하락·물량 상승

<중국 수출물량·수출단가지수>



주: 1) 계절조정 기준  
자료: Haver Analytics

2. 양국의 이러한 성장흐름은 글로벌 성장과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산업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통화긴축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pivot 관련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을 위한 노력은 미국의 수입구조 변화 및 글로벌 분절화를 통해 세계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고정자산투자를 과거 부동산투자 중심에서 친환경산업과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어 향후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경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교역 상대국의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축소되고 있다.

3. 금년중 G2경제는 재정·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단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對중국 수출 규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간 분절화가 심화되고 각 국가에서 자국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 3.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조사국 경기동향팀)

1. ChatGPT3.5 개발로 촉발된 AI Boom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내 반도체 산업도 지난해 생산·수출이 증가 전환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국내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가격이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 2010년대 이후 과거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국면을 살펴보면, 상승기간은 약 2년으로 유사하였으나, 상승폭은 각 국면별 수급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반도체 경기는 스마트폰 수요 확대, 클라우드 서버 증설, 코로나 비대면 활동 증가와 같은 신규 IT 수요 증대로 상승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응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및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되다가 추가 수요 약화로 인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하락국면으로 전환되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상승폭은 수요 확산이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는 경우 더 컸다.

3. 최근 수요 및 공급 여건을 감안하면, 금번 반도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 수요 측면에서 AI 서버 부문은 빅테크간 AI 경쟁 심화로 견조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부문(일반 서버, 모바일, PC)도 on-Device 기술 적용 등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공급의 경우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제품의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익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커 공급 확대가 제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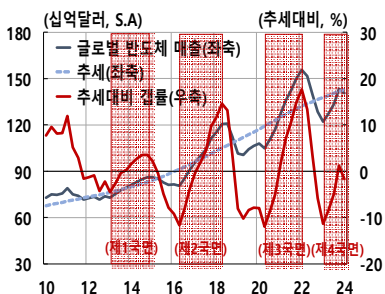
4.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및 건설투자,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설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반도체 경기의 상승기간은 유사(약 2년)하나 상승폭은 상이

서버뿐만 아니라 모바일·PC의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전망

글로벌 반도체 매출과 국내 반도체 수출은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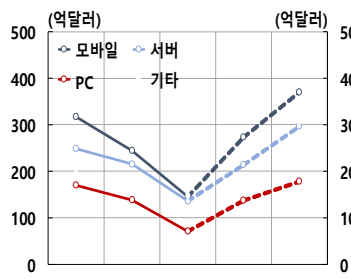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경기국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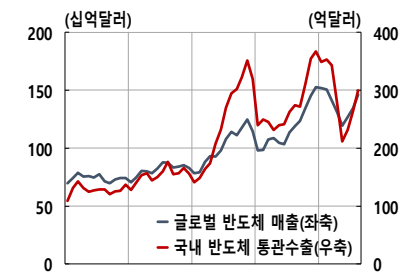
주: 1) WSTS의 글로벌 반도체 분기 매출액자료: Gartner에서 HP필터링으로 추세를 추출

자료: WSTS, 자체 추정

<메모리 매출 전망>



<글로벌 반도체 매출과 국내 반도체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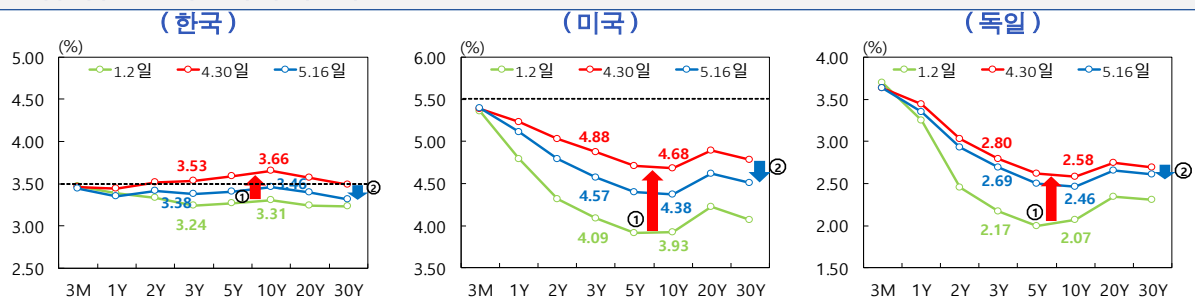
자료: WSTS, 관세청

## 4. 금년 중 수익률곡선 변화의 주요 특징 및 평가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최강욱, 구병수, 김영웅, 윤지유)

1. 우리나라의 수익률곡선<sup>1)</sup>은 금년 들어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며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4월 이후에는 중·장기구간을 중심으로 상당폭 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 올해 들어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진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난 글로벌 공통 현상인데,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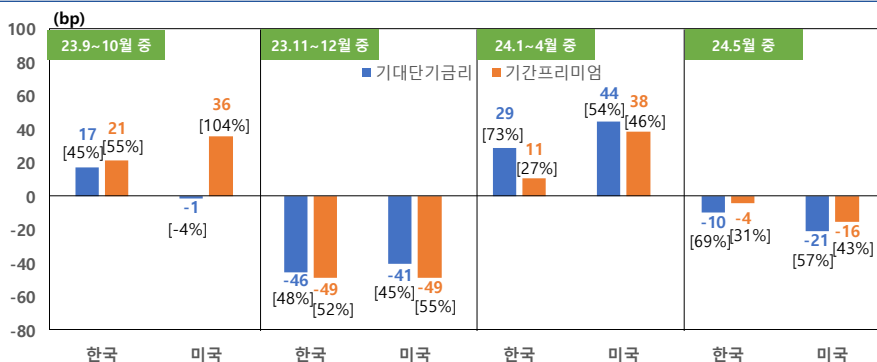
[그림] 금년 중 주요국 수익률곡선 변동



자료: Bloomberg

3. 우선 수익률곡선의 동인(drivers)을 기대단기금리와 기간프리미엄으로 나눠보면 금년 중 우리나라 수익률곡선 변화는 향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다소 긴축적(hawkish)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기대단기금리가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sup>2)</sup>.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기대 안정적 움직임을 나타냄에 따라 기대단기금리와 수익률곡선의 변동폭이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한·미 국채금리(3년물)<sup>1)</sup> 변동요인 분해<sup>2)</sup>



주: 1) 무이표 국채 3년물 기준  
2) 5월은 한국이 1~16일 중, 미국이 1~15일 중 기준  
자료: 한국은 금융시장국 자체추정(AFNS모형, ACM모형, AFNST모형 평균), 미국은 FED 추정치(ACM모형, KW모형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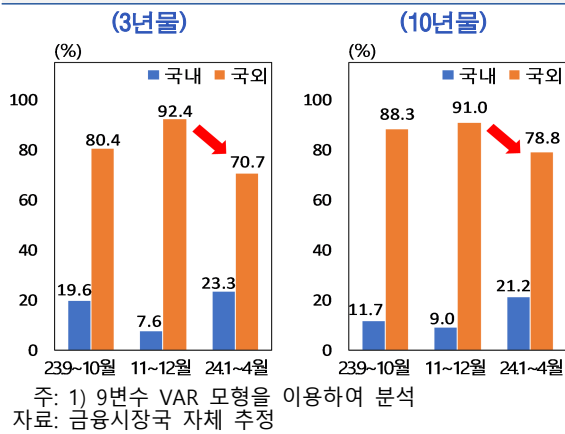
- 1) 수익률곡선은 만기별 금리수준을 연결한 곡선으로 채권금리의 기간구조(term-structure)이며, 기대가설에 따라 무위험 단기금리의 해당 만기까지 기대치를 가중평균한 값인 기대단기금리(expected short-term rate)와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인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될 수 있다.
- 2) 금년 중 국고채금리(3년물) 변동은 대부분 통화정책과 밀접한 기대단기금리 등락에 주로 기인(금리 변동의 69~73%)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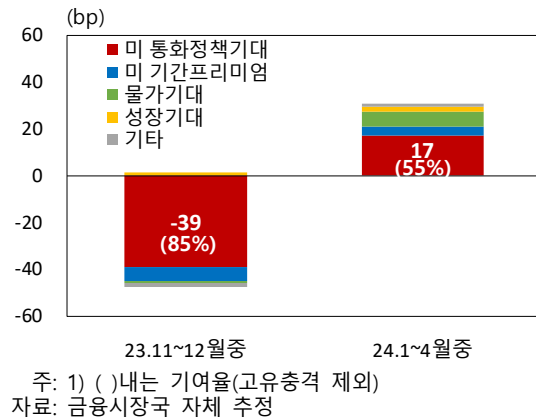
4. 다음으로 금년 중 국내 수익률곡선 변화의 동인을 국내·국외로 나누어보면 국외요인의 영향이 여전히 컸으나 그 비중은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축소되었다<sup>3)4)</sup>. 이처럼 금년 중 국외요인의 영향이 일부 줄어든 것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기대 변화의 영향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국내요인의 영향은 물가에 대한 시장기대를 중심으로 작년 말보다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요인 중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sup>5)</sup>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된 것이 가장 큰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국고채금리 변동에 대한 국외요인 기여도 비교<sup>1)</sup>



[그림] 기대단기금리(3년물) 변동요인별 기여 비교<sup>1)</sup>



6. 이에 따라 국고채금리는 국외충격에도 국내 시장기대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변동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률곡선의 변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였다. 다만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흔들리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sup>6)</sup>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대 실패 등으로 수익률곡선의 변동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기대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7. 아울러 금리인하 시점 및 폭에 대한 기대 변화<sup>7)</sup> 등으로 당초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3) 국고채금리 변동 요인을 미 통화정책 기대, 미 기간프리미엄, 외국인 국고채투자 등 국외요인과 물가·성장전망, 국고채 공급 등 국내요인으로 나누어 Recursive VAR 모형으로 추정된 결과, 국외요인의 영향력이 금년들어 70%대(3년물 70.7%, 10년물 78.8%)로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한·미 국채금리 간의 동조성이나 영향력을 상관계수나, 시변계수 VAR(Time-varying parameter VAR) 모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해보아도, 지난해 말(9~12월 중)에 비해 금년 4월 중 한·미 장기금리 간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같은기간 영향력도 소폭 축소되었다.  
5) 4월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따른 유가 불안에도 영향 받으면서 높은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6) 호주의 경우 지난 4.24일 1/4분기 CPI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3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19bp)한 바 있다.  
7) 국내 채권시장 참가자나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은 4월 초에 금년 3/4분기 중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최근 들어 4/4분기에 인하될 것으로 기대를 조정하였다.

## 5. 거주자 외화예금 변동요인 및 최근의 감소배경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이종찬·전정호)

**1. 거주자 외화예금은 2022년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교역 규모 확대, 정책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2010년말 233억달러에서 2022년말 1,110억달러로 크게 증가하며 국내은행의 중요한 외화조달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23년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여 2024.4월말 현재 914억달러로 줄었다.

**2. 거주자 외화예금의 장기 변동은 수출입 등 대외거래 규모와, 단기의 일시적 변동은 환율 및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가 확대되면서 지급결제를 위한 외화예금의 보유규모도 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거래적 요인). 또한 기업들은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 환율 상승이 예상되거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향후 환차손 및 지급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비적으로 외화예금 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예비적 요인).

**3. 2023년 이후 거주자 외화예금이 감소세를 나타낸 데에는 2022년중 크게 증가했던 예비적 수요의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하반기중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상수지 악화 등 국내 리스크 요인이 가세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외화예금 보유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환율변동성<sup>1)</sup>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입 기업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됨에 따라 예비적 목적의 외화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예비적 요인). 또한 대외거래의 축소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다른 거래에 비해 지급결제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의 회복세가 더딘 것이 외화예금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래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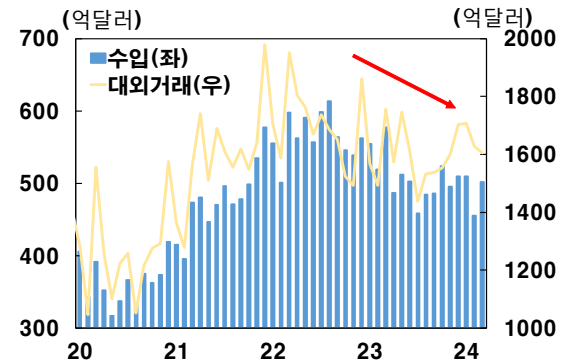
**4. 다만, 이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감소세가 2022년 하반기의 일시적 급증 부분이 되돌려진 측면이 있고 향후 대외거래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화예금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업외화예금원/달러 변동성<sup>1)</sup>>



주: 1) 원/달러 옵션 내재변동성(1m)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대외거래<sup>1)</sup> 규모>



주: 1) 수출, 수입, 금융거래의 총액기준 합계  
자료: ECOS

1) 원/달러 옵션 내재변동성을 의미하며 환율 수준이 높더라도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경우 환율변동성은 낮을 수 있다.



## 6.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채권투자 급증 배경 및 평가

(국제국 외환분석체계개선반 표상원·전정호)

1. 24.1/4분기중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91억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21.1/4분기(108달러) 이후 가장 컸으며, 특히 해외채권투자 규모(39억달러)는 사상 최대(분기 기준)를 기록하였다. 기간 중 개인의 해외채권투자 규모는 보험사·증권사의 투자 규모보다 컸으며 해외채권 투자가 활발했던 17년(33억달러)과 23년(29억달러) 연중 투자 규모를 넘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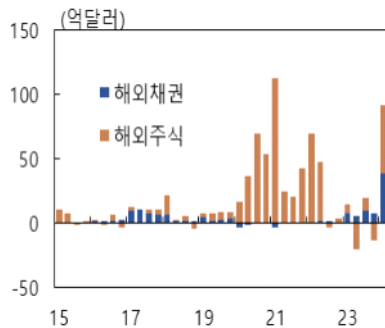
2. 개인의 해외채권투자는 증권사를 통한 직접투자는 확대된 반면 ETF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축소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채권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브라질 채권에도 일부 투자하였다.

3. 내외금리차 역전폭 확대로 해외채권의 투자매력이 증대된 점이 개인의 해외채권투자 확대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들어 미국채금리(3년물)가 4% 중반으로 반등함에 따라 내외금리차(국고채 금리 - 미국채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서 해외채권의 투자매력이 증대되었다. 또한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존함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자본이득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고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약화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해외채권 등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된 것을 보면 높은 환율에 대한 개인의 투자 민감도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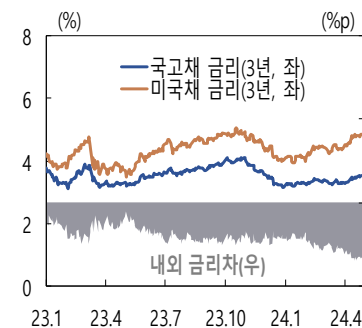
5. 개인의 해외채권투자 확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시경제적으로는 대외금융자산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채권투자가 대체로 환헤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내외금리차 역전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캐리트레이드 수요가 이어지며 외환수급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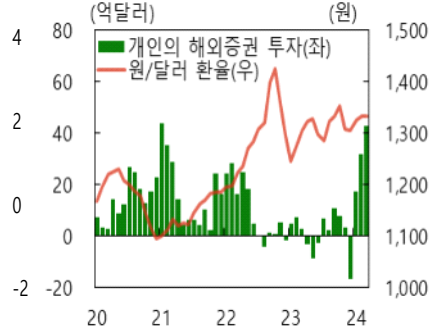
자료: 외환전산망

<한·미 국채금리>



자료: ECOS

<환율 및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자료: 외환전산망, ECOS